

## 제105회 김해시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58호선(무계삼계) 신설도로 오는 4일 조기개통

이동거리 2.1km·주행시간 14분 단축, 물류비용 절감 기대
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(청장 김홍목)은 김해시 등 경남북 20개 시·군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서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신설국도 일부구간 5.9km를 10월 4일 14시에 조기개통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에 개통되는 신설국도는 김해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기존국도(58호선) 상습정체 구간(8.0km) 해소를 위해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로써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되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김해시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으며
  - \* 통행시간 14분(22분→8분), 운행거리 2.1km(8.0km→5.9km) 단축  
(L=5.9km, 교량 4개소/1,076m, 터널 1개소/882m)
- 특히, 오는 10월 11일 김해시 등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전국 16개 시·도에서 축구 등 49개 종목에 3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임에 따라 대회기간 시가지 구간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
- 당초, 위 신설도로는 2025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체전에 맞추어 개통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개통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은 물론, 혼잡한 시가지의 교통량 분산과 출·퇴근 시 주촌~삼계교차로 상습정체를 해소하여 국도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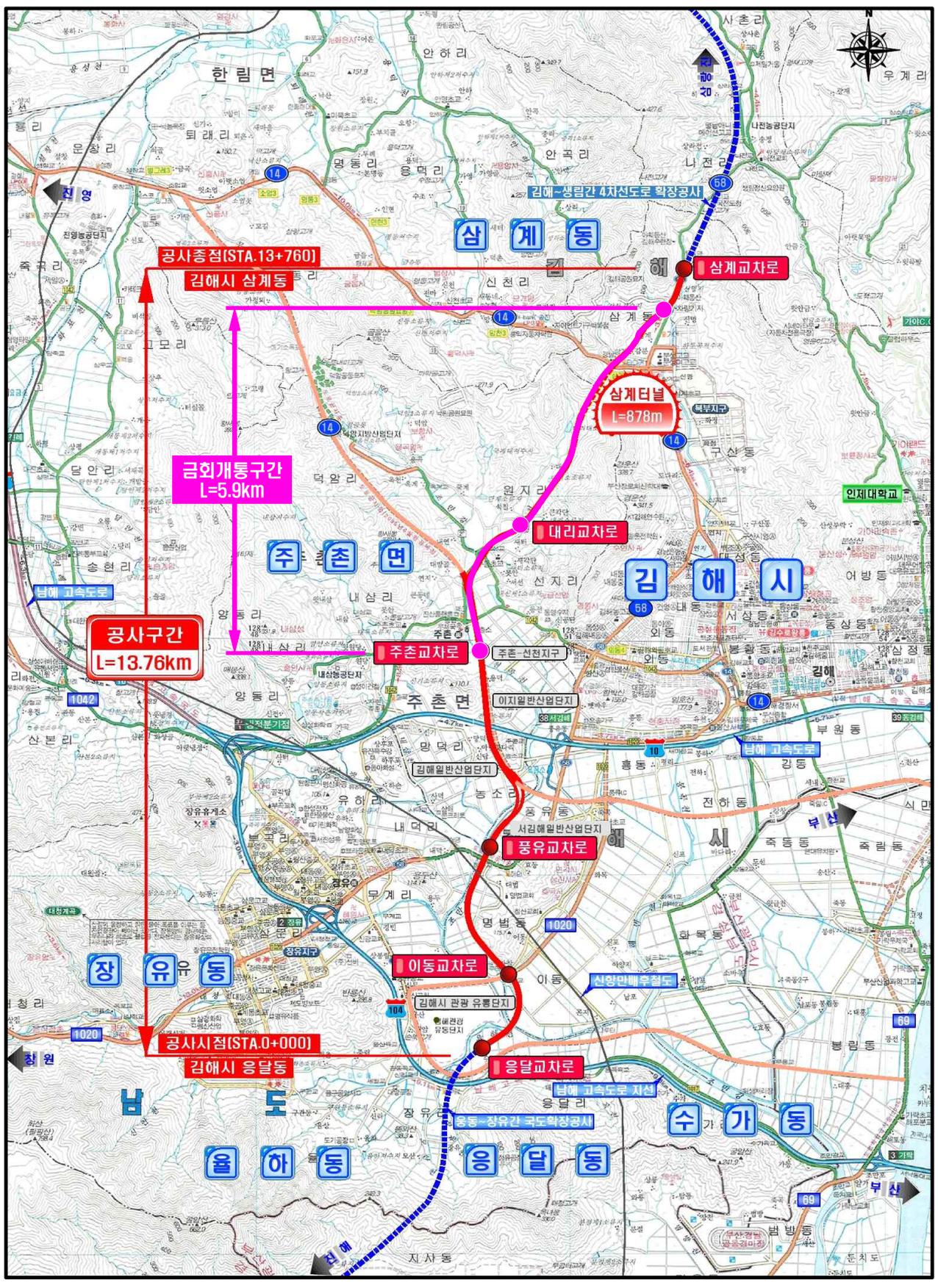
- 한편, ‘무계-삼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’의 잔여 구간인 경남 김해시 응달동에서 경남 김해시 주촌면까지 7.9km 구간은 연약지반 변위 발생으로 지반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, '25년 12월 최종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.
  
-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수용 도로계획과장은 “편리하고 안전한 도로, 쾌적한 도로, 스마트한 도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영남권 도로망 구축에 앞장서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	책임자	과 장	조수용	(051-660-1101)
		담당자	주무관	전종완	(051-660-1292)
		담당자	주무관	이대엽	(051-660-1104)



# 참고 1

## 국도58호선 무계-삼계 위치도



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경남 김해시 응달동 ~ 김해시 삼계동
- 기 간 : '08. 03. 24. ~ '25. 12. 31.
- 사 업 비 : 4,772억원
- 발 주 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- 설 계 자 : (주)이산, (주)포스코
- 시 공 사 : DL이앤씨(주)
- 감 리 자 : (주)내경엔지니어링
- 사업규모 : 연장13.8km, 4~6차로 신설 및 확장(폭 20.0m~27.0m)
- 주요시설물 : 교량 3,651m/18개소, 터널 882m/1개소, 입체교차로 8개소

□ 시점(주촌교차로~대박분기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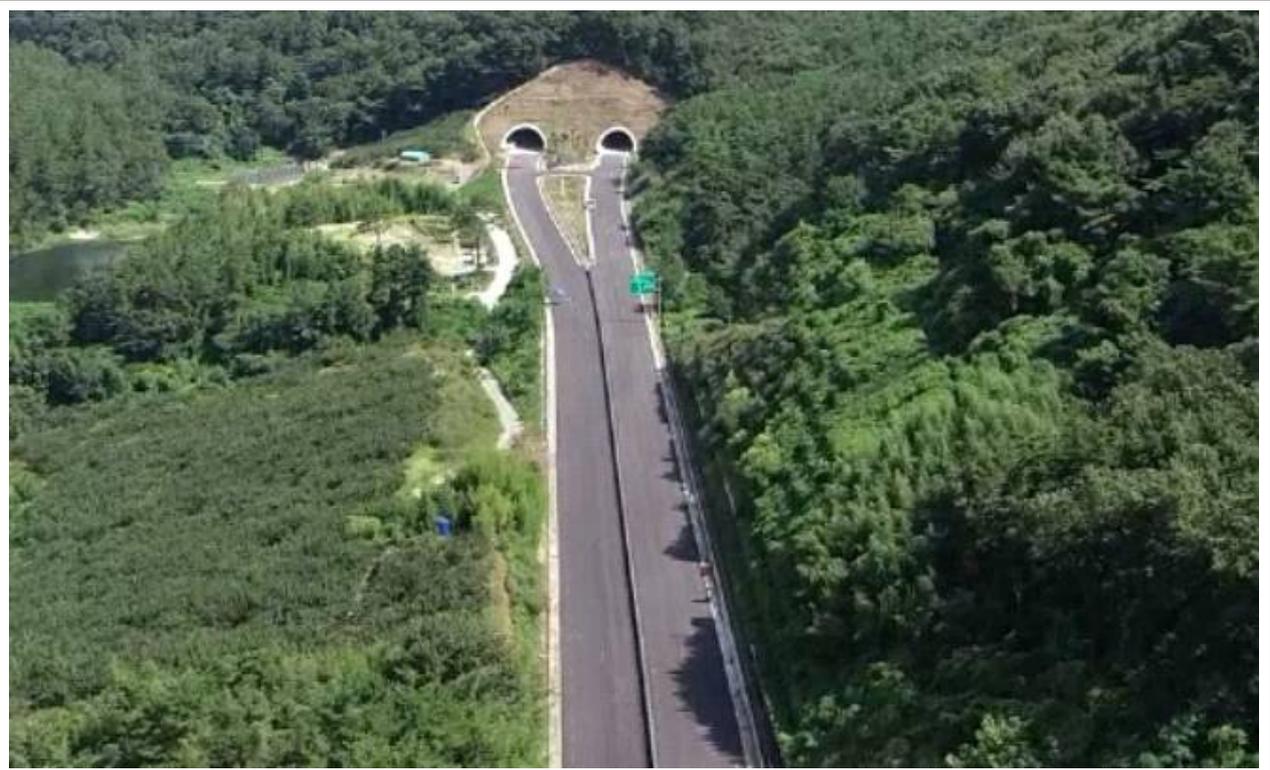
□ 대박분기점~원지교구간



□ 원지교~대리교차로구간



□ 대리교차로~터널시점



□ 터널종점(감분교)~삼계교차로구간



□ 종점(삼계교차로)

